

(주)우진



대표이사 회장 李聖範

- '63년 4월 우진계기공업(주) 입사
- '80년 1월 우진계기공업(주) 부사장
- '80년 3월 (주)우진 대표이사 취임
- '99년 3월 (주)우진 대표이사 회장 취임

21세기 계측기 사업분야 조우량 업체

산업의 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라의 계측기 산업은 1970년대 철강산업, 중화학공업의 발전 속도와 비교할 때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우진의 창업자 이성범 회장은 1960년대 초부터 압력 및 온도분야의 계량계측기의 개발, 생산, 보급에 진력하여 국내 계량계측기 산업의 초석을 마련하신 분으로 우진은 정밀 계측기의 국산화를 통해서 산업현장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고자 1980년 설립되었다.



(주)우진 본사 전경

창사이래 연구개발 우선 투자, 내실경영, 스피드경영 고수



생산 현장

우진은 창사이래 연구개발 우선 정책, 내실경영, SPEED 경영이라는 3가지 방침을 고수해 오고 있다.

연구개발 우선의 경영방침을 고수하여 국내 최초의 계측연구소 설립과 매년 매출액 대비 5% 이상의 R&D 투자를 실천하고 있고 또한 인력구성 면에서도 전직원 중 15% 이상이 현재 R&D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소모형 침적 열전대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이를 개선한 유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센서의 국산화와 국내 최초의 원전 Q-CLASS 등록이라는 성과를 낳았다.

둘째,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내실경영의 원칙이 있다. 우진이 국가의 외환위기 속에서도 해외투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경영방침이 투자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신뢰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SPEED 경영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진은 사업 단위내에서 SBU(Strategy Business Unit)의 팀제를 채택하고 있다. SBU는 구매, 생산, 영업의 전 과정이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빠른 결정과 행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 결재라인의 축소를 통한 전결권한의 하향 위임으로 팀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연봉제를 채택함으로써 실적에 따른 평가가 되도록 하고 있다.

창업자 이성범 회장의 경영에 대한 이러한 남다른 노력과 중요성에 비해 소홀히 다루어졌던 국내 계측 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사명감과 30여년에 걸친 외길 인생, 그에 따른 업적으로 '96년 계량 및 측정분야의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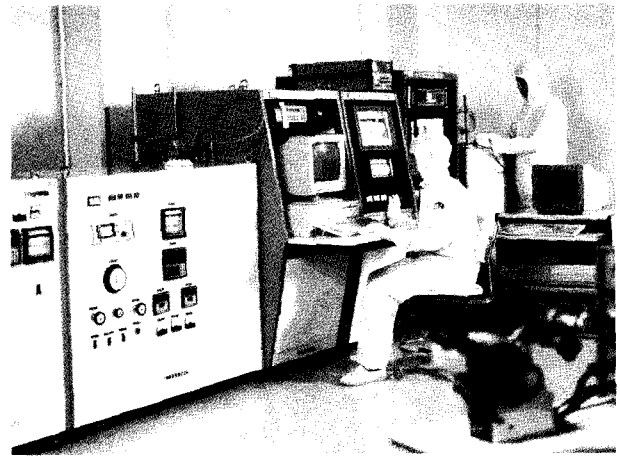
철강산업용 계측센서, 온도센서 제조기술 세계적으로 인정

우진은 1980년 5월 13일 회사를 설립한 이래 온도계측기를 주력으로 하여 국내 기간산업의 보조자적인 계측산업을 꾸준히 이끌어가고 있는 업체이다.

POSCO에 철강산업용 계측기기류를 납품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기술을 이전 받아 시작했으나, 이제는 철강산업용 센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Tip부분을 비롯한 각종 부품들을 역수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전세계에서도 BIG5에 들어가는 철강산업용 계측센서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우진은 POSCO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하여 온도는 물론 산소, 탄소함량의 계측 및 시료채취에 이르기까지 제철공정에서 필요한 주요 계측기술을 꾸준히 향상시킴으로써 제철기술 발전에 기여해왔다.

꾸준한 매출성장과 수익성을 유지하던 (주)우진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기술개발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87년 계측기술연구소를 인가 받아 '91년 9월 연구소 건물을 준공하였다. 현재 계측기술연구소에서는 온도 전 분야, 진동 및 충격, 압력 등에 대한 국가표준의 연구를 비롯하여, 금속 신소재 연구와 계측기기 성능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측기술 연구소

계측기기 산업에 주력하던 우진은 지속적으로 온도계측 분야에 매진하여 원자력, 조선, 항공, 석유화학 분야 등 전기간산업에서 사용되는 온도계측 센서의 공급에 주력해오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국내 업체 최초로 원자력 Q-CLASS 인증을 획득한 것은 우진의 온도센서 제조기술이 세계 Major업체와 같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우진은 현재 한국형 경수로에 들어가는 중성자센서를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NSSS 디지털 건전성 감시계통 국산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계측과 관련된 분야로 계장시스템, 환경분석계, 설비진단시스템, 철강산업용 자동측온장치 등을 개발하여 계측에서 제어까지 산업용 제어계측의 Total Line을 구축하는 한편 최근에는 사업영역의 확대와 발맞추어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조하여 팀제를 도입함으로써 4개 사업팀을 편성, 기술개발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다.

우진은 장기 Plan의 첫 시발점으로 국내 최초의 계측기 협동화 단지를 건설하는 중 IMF를 맞게 되었다.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업에 많은 관련 업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으며 또한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진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999년 5월 협동화 단지를 완공하고 기흥 협동화 단지로 이주할 하게 되었다.

우진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획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창사이후 다져온 건실한 경영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며 협동화 단지는 국내 계측기 산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철계방진합금, 특허청 주관 발명 대상 수상... 미국, 일본 등의 특허 획득

우진의 R&D에 대한 투자의 결과물 중 최고로 손꼽히는 것이 특허청이 주관하는 제1회 발명대상 수상품인 철계방진합금이다. 소음 및 진동 공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로 고조되어 법적 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철계방진합금은 철을 기본소재로 활용하여 기존 방진소재의 단점인 고가, 소성가공시 특성 저하, 저장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대체 소재로 각광을 받고 있다.

철계방진합금의 우수성은 국내의 Project 수행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한전과는 고리원자력발전소의 격납용기 살수펌프의 Basement를 방진합금으로 대체하여, 소음·진동 저감에 기여했으며, '98년 IRON골프클럽의 소재로 수출되는 등 많은 방면에서 실용화가 진행중이며 현재 방진합금은 미국, 일본, EPO의 특허를 획득한 상태이며, G7사업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하에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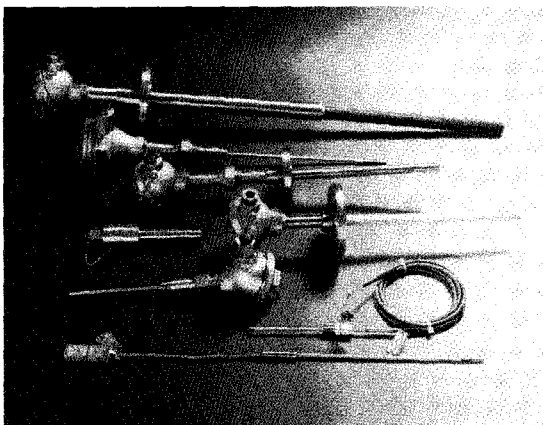
계측기 산업, 세계수준의 기술력 확보... 사용자들의 국내기술 신뢰성이 과제

정부와 한전은 그간 계측기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각종 지원정책을 진행시켜 왔으며 그것이 국내 관련 산업을 한단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왔다. 또한 우진 역시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이제 국내업체의 기술수준이 모방의 단계를 벗어나 창조의 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수준의 기술력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국내기술에 대해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해외적용 사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정부나 한전부터 이제부터는 국내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매에 나서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 싶다.

제품소개

계측센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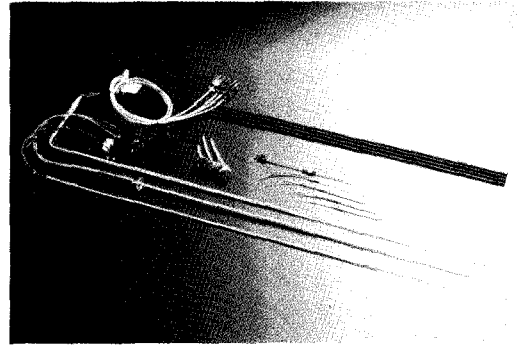
T/C RTD

계측센서 제조분야는 (주)우진의 모태가 되는 사업으로 철강사업에서 사용되는 소모형 침적 열전대류, Sampler, 용탕중 성분분석센서 등은 이미 세계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는 온도센서류는 Thermocouple, RTD를 주력으로 하여, 원자력, 반도체, 항공, 조선, 석유화학 등 외산에 의존하던 계측산업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반 Thermocouple류에 내구성을 보완하여 열악한 현장조건에서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되는 Sheathed T/C의 경우는 국내최초로 KS기준을 마련하여 표준화에 기여하는 한편, 주원재료인 M.I Cable의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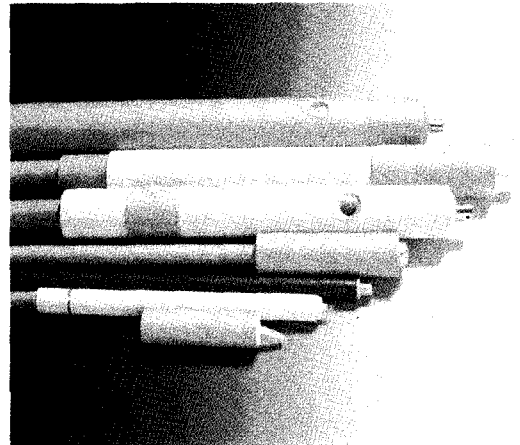
산화에도 눈을 돌려 국내계측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제어장치류

10여년간의 계측센서 공급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어장치산업에 뛰어든 (주)우진은 DCS, TM/TC, SCADA를 비롯한 계장 전분야에 걸쳐 관련사업의 다각화를 시도하면서 계측에서 제어까지의 전문기업으로서의 기술개발의 노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라 불리는 설비진단시스템은 라인에 설치된 각종 설비에 직접 센서를 연결, 센서에서 전송되는 전기적 신호를 분석하여 설비의 이상을 미리 경고하는 시스템이다. CMS는 설비이상을 조기에 파악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위험장소로부터 떨어져 감시함으로써 중대사고의 감소와 운전자에 의한 설비보전의 최소화로 Plant사업에 새 장을 열고 있다. 현재 CMS는 설비에 대한 조기 진단이 반드시 요구되는 발전소, 석유화학, 가스, 제지산업 등에서 많은 관심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Profile T/C



Probe

설비류

철강산업에서의 계측작업에서 열악한 현장분위기에 착안하여 자동화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자동화장치사업은 용광로에 침적되어 계측되는 계측센서를 자동으로 장탈착 및 침적함은 물론 여기서 얻어진 전기신호를 계측기까지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자동측온장치를 국산화하여 국내 철강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98년에는 포스코 연구소와 공동으로 슬래그의 두께를 측정하는 장치를 개발 특허를 획득했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에 특허 출원중에 있다.

국가표준

연구소 인가 이전에 이미 국가검교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정도로 국가표준에 관심을 가져온 (주)우진은 온도, 진동 및 충격, 압력 분야에서 국가검교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얻어진 경험을 토대로 보다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온도계측기 검교정장비를 개발, 정밀측정진흥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자체교정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에 보급하는 한편, 수입대체 및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